May 13, 2014

Da Hye's Diary

며칠 전에 친구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. 지금 친구는 중국에 있기때문에 만나서 직접 위로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위로해줬다. 위로를 해주다가 문뜩 생각나버렸다. 이제 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떠올라버렸다. 친구는 이별을 먼저 고한 입장이고 나는 이별을 당한 입장이기에 이별을 먼저 말했으면서 왜 힘들어할까?라는 생각을 했다. 이런 친구를 보면서 이별을 먼저 말한사람도 힘들구나 라는걸 느꼈다. 이별을 당한 나만 힘들고 그랬던게 아니고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니 위안이 되면서, 괜히 그 사람이 생각나서 보고싶어졌다. 작년 이 맘때만해도 사이좋았는데..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과의 추억들이 기억나 버렸다. 내가 이 일기를 내년에 보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그사람을 다 잊었겠지? 새로운 사람 만나서 또 다시 행복하게 새로운 사랑 하고있겠지? 누가보면 나이 엄청 먹은 줄 알텐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그래도 누구나 사랑 앞에서는 진지해지니까 뭐..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그렇게 못 잊을거 같았던 첫사랑도 잊었는데 이 사람이라고 못 잊을까... 사랑에도 치여보고!!일에도 치여보고!!이리저리 치여봐야 나중에 과거회상할때 그땐그랬지~하면서 뿌듯? 해 하겠징.. ㅎ ㅎ 이제 사랑얘기 다 썼으니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써야징... ㅎ ㅎ 올해 전문대 졸업하고 한달 만에 일자리 구해서 편집디자인 일을 하고있는데 도저히 이건 내 적성에 안맞는 듯 하다. 나한테 맞는 일이 있긴 한걸까? 내가 무엇을 잘했지?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?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전혀 모르겠다.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디자인으로 나가보려고한다. 인생이 짧은거 같으면서도 길지 아니한가. 늙어서 일 못할 때 까지 일하면서 먹고살아야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싶은지도, 잘하는게 무엇인지도 모른체 시간낭비하면서 살고싶지 않다. 내년 이맘때에는 내가 하고싶은일, 내가 잘 하는 일 찾아서 하고 있기를 바란다. 지나간 과거의 나도,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나도,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나도, 나는 나를 믿는다.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얽매여서 있지말고 조금만 투자하면 바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한다. 내년에 이 일기를 본다면 내가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잡아서 열심히 사는 내가 되길 바란다. 아직 젊으니까 겁없이 부딪혀 보는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. 1년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극받고 열심히 살아가자. 아무리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끝이 있기에 더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. 이 귀한 시간들 알차게 써야겠다 ㅎ ㅎ 열심히 운동해서 살도 빼고! 하고싶은거 찾아서 공부도 하고! 다양한 걸 보고 느끼고 즐겨서 트인 시야를 가지고! 활기차게! 이렇게 말이라도 글이라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쓰면 정말 내가 긍정적으로 될거란 생각에 열심히 긍정적으로 쓰고 말한다. 조금이라도 우울한 생각하지 말자! 이 세상에는 아직 아름다운것들이 얼마나 많은데! 화이팅이다! 내년에 이 일기를 볼 나는 말로만 글로만 긍정적인척 하지말고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. 그 사람이 날 잊고 잘 살듯이 나도 잊고 잘 살자! 내 삶의 주인은 와따시니까-★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..그렇지만 정말 힘이 나는건 사실이다. 보기만해도 비타민과 활력소가 되는 사람이 되고싶다. 될 수 있을거다. 아니 내년의 나는 이미 되었다. 그런 사람이다. 지금은 현재지만 내년에는 과거가 되겠지? 지금 현재의 나는 미래에서 보면 과거인 나는 이 일기를 볼 미래의 나를 믿고, 사랑한다.